일우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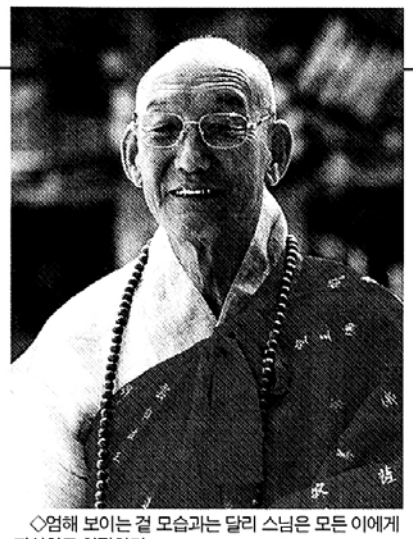
소탈 · 자상… "공부 게을리하면 불호령"

청도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일우스님이라고 한다. 지역의 대소사에 스님이 참석하지 않으면 자리가 빛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데는 스님의 소탈한 성격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스님은 지역민이나 신도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격식을 차리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밭일을 하는 것도 이런 성격 때문이라고 신도들은 말한다.

하지만 상좌들에게는 더없이 엄하다. 10년째 스님을 모셔왔다는 혜웅스님은 "공부를 좀 소홀히 한다 싶으면 여지없이 불호령이 떨어진다"며 "중이 공부 말고 무슨 할 일이 있느냐고 입버릇처럼 말씀 하신다"고 전했다. 상좌 혜둔스님도 "스님밑에서 공부하지 않고는 견뎌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우스님은 1927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943년 적천사에서 동명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44년 동화사 강원을 수료했다. 이후 보현사 주지, 태고종 중앙종의회 의원, 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을 거쳐 1998년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했다.



◇엄해 보이는 겉 모습과는 달리 스님은 모든 이에게 자상하고 친절하다.

마음에 은 가치

스님

(신로회의 의장)

투에서 순박함이 느껴졌다. 경북의 최남단에 놓인 청도, 말 그대로 시골 냄새가 곳곳에서 풍겼다. 탐욕과 이기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이런 곳에 사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르게 해야

은 움직이나

고

은 있으나

않아

에 집착할 뿐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아. 불교 신도들 가운데 스님을 보기 위해 절에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올바른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 그런데 스님이라는 상에 기댈 뿐 자신을 탐구하고는 하지 않아요. 스님은 그저 실상에 불과할 뿐리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이지. 스스로 자신을 으려 하지 않고 누구에게서 찾는다는 말인가. 실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 얘기를 들어도 소용 없는 것과 같은 이치 "

스님은 요즘 적지 않은 민을 하고 계셨다. 초대 로회의 의장을 맡은 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은 요즘 만나는 스님들에게 '육화경(六和敬)'에 힘쓰자고 당부한다. '육화경'이란 '깨달음을 구하여 깨끗한 행을 닦는 가 서로 사이좋게 공경하며 지내는 여섯 가지 방 을 말하는 것이다.

"육화경에는 신업동(身業同) 구업동(口業同) 의업동(意業同) 동계(同戒) 동시(同施) 동견(同見)이 있습니다. 신업동, 구업동, 의업동은 신구의(身口意)의 행위에 있어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중생들이 함께 그 법을 공경하여 행하게 하는 것이며, 동계 · 동시 · 동견은 자신이 닦은 계행을 통해 얻은 덕을 베푸는 것을 말해요. 스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청정수행하면서 서로 화합하면 되는 것이지."

스님은 애종심이 남다르기로 소문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종단의 원로이기 때문에 갖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작 스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후세의 비판이다. 한국현대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이기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진 선배 스님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기록돼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스님은 10년 전 '한국불교태고원'이라는 이름의 재단법인을 만들고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보현사를 재단법인에 귀속시켰다. 투명한 사찰운영을 할 때 신도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승가화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에서다.

"부처님 법은 몸과 마음에 배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럴듯한 말만 앞세우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부처를 파는 일이야. 초발심을 항상 유지하면서 신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스님들은 그렇지 못해. 혼탁한 세상을 밝혀주어야 할 승가가 오히려 세속의 손가락질을 받는데서야 어찌 감히 승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끝에 스님은 욕심 없는 승가상을 구현하기 위해 '승로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소의 지론을 꺼내놓으셨다. 승려의 노후복지문제가 해결되면 굳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셨다. 승가가 세속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의 대부분이 재물욕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니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한 달에 서너 번은 외부의 요청으로 초청법문을 한다. 법문 때마다 스님은 대중에게 혼신을 다해 공부하라고 강조하신다.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경전공부와 참선을 병행하라는 가르침도 빼놓지 않으신다. 한쪽에 치우쳐서는 스스로를 밝히기 힘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로 베풀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참선이라는 것은 마음의 본성을 밝히는 것이고, 경전공부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일이지. 하지만 참선만 하면 마음은 움직이나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경전만 읽으면 입은 있으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지. '선불심(禪不心) 교불언(敎不言)'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없는 마음 없고 마음 없는 말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과 교도 그와 같은 이치야. 선과 교가 각자 제가 우위라고 싸워봐야 소용없지. 선은 교를, 교는 선을 아우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스님과 대화를 나눈 지 2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 반쯤 되었을 때였다. 한 신도가 기자에게 점심공양을 하고 나서 더 말씀을 나누라고 권했다. 오전 12시반경 보현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점심공양을 권하는 신도의 말이 있었지만 모두가 공양을 끝낸 시각에 다시 공양상을 차리게 한다는 것이 미안한 마음에 취재를 마치고 하겠다고 얼버무린 차였다. 스님께서도 신도의 말을 들고는 공양을 하고 나서 얘기하자고 하시기에 대중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식탁에 놓인 수저가 15개가량 됐다. 신도들과 상좌스님들은 물론 일우스님께서도 그때까지 점심공양을 하시기 전이었던 것이다.

미안한 마음에 "저희는 모두 공양을 하신 줄 알았는데…"라며 말끝을 흐리자, 스님께서는 "같이 먹어야 맛있지" 하며 웃으신다. 상좌스님은 "큰스님께서 손님이 오시거든 같이 공양을 하자고 하셔서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씨. 스님과 신도들은 그렇게 따뜻했다.

無味 모르며 어찌 진리 찾겠나

스님들 노후위한 '승로원' 필요

청도역 앞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이따금씩 다니는 승용차가 차지하기에 4차선 도로는 너무 넓어 보였다. 가로수는 한가로이 하품을 하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땅은 사람을 닮는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그 땅을 닮아간다. 일찍이 산과 물이 푸르고 맑으며 인심 또한 순후하여 삼청(三淸)의 고장으로 불리어져 왔던 청도. 청도는 스님을 닮았고, 스님은 청도를 닮았다. 이곳 사람들은 그런 청도를, 그런 스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리고 모두가 스스럼없이 청도를 사청(四淸)의 고장이라고 말한다.

글=한명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휘광스님

조계종에서는 출가연령을 기존의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10년을 낮추기로 하였다. 이유인즉 "세속에서 오래 살다가 오게 되면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갖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데 있다. 부처님 당시를 생각해 보거나 계율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나이로 출가의 조건을 삼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종단이 처한 고령출가자 문제의 현실적 어려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점에 나는 휘광스님을 생각하게 된다. 스님은 내가 고교를 졸업하기 전 출가를 놓고 수없이 망설이고 할 때 너무도 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터주셨던 분이다. 고교시절 불교의 인연을 만나 절에 다니게 되었다. 영등포 집에서 우이동 도선사까지 2시간 걸렸던 거리를 고3이 될 때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성으로 다녔다. 매주 법회에서 스님의 법문과 철마다 하던 철야정진, 수련회 등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다.

휘광스님은 그렇게 절에 다닐 때 우리 학생회



를 지도해주던 법사셨다. 둥글고 약간 살이 붐은 얼굴에 안경을 끼고 항상 바빠 보였던 스님은 마치 대학 강단의 교수처럼 학생들에게 법문을 하곤 하셨다. 절에 다닌 인연이 깊어지면서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스님들이 점차 가까워져 갔고, 열린 문틈으로 흘낏 스쳐보기도 어려웠던 스님의 방에 들어가 처음으로 차를 얻어마신 것도 휘광스님의 방에서였다고 기억된다. 당시 도선사에는 독성각과 바위틈 사이에 낸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휘광스님 방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책상하나 놓고 한 몸 누이기도 빠듯한 그 공간에 책이 얼마나 많았던지, 발 디딜 공간도 없이 책이 쌓이고 포개져 있었다. 설법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감탄하게 하고 빨려 들어가게 한 그 법문이 다 이 책들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실감되는 순간이었다. "스님,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물음에 "방이 좁아서 가져오지 않은 책이 더 많아, 박스에 싸서 다른 곳에 맡겨두었는데 나중에 여건이 되면 옮겨야겠어." "그런데, 이 책들 다 보셨어요?" "그럼 다 봤지, 최근에 산 몇 권만 빼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도 나의 눈길은 책 무더기들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모두 손때가 묻어 여러번 잡았던 흔적이 분명하였다. 차를 마시면서 스스로의 무식과 그동안의 교만함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또래의 다른 법우들 보다 조금 많이 안다고 아는체 하였던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었다. "스님 책 몇 권만 빌려주세요." "왜?" "공부 좀 하게요." "음~ 네가 볼만한 책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몇 권만 빌려주세요." 떼를 쓰다시피 해서 책을 한 권 골라 받았다. 〈아함경〉에 관한 책이었다. 몇 권 더 빌려달라는 요구에 우선 그 책을 보고나서 다시 오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다. 순간 초파일 행사가 끝나고 중국집에서 짬뽕을 사주시던 편안한 모습과 차를 주시던 여유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정색을 하시고는 "네가 책을 읽겠다는 생각은 기특하지만, 네 수준에 맞지도 않는 여러 권의 책을 가져가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니 시키는 대로 해라"며 자칫 걷님을 수 있는 공부의 길을 잡아주셨다.

스님의 그 건강해 보이는 몸이 밤잠을 잊고 공부하시느라 언제는 법회를 마치고 코피를 쏟기도 하셨다. 시간이 지난 뒤 알게 되었지만 스님은 당시 동국대에 재학중이셨고 당신의 공부가 바쁨에도 법회에 오는 학생들에게 늘 최선을 다하여 소홀함이 없었던 것이다. 언제나 자신 있고 시원스

막힘없는 논리 · 자세 당당

출가 망설일때 길 열어줘

런 목소리에 막힘없는 논리와 당당한 자세는 참 닮고싶은 모습이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또는 '사회에 나가서 무엇이 되어 뭘 해야 할까?' 하는 고민으로 시간을 엮어가는 청소년기의 되고 싶은 한 '표상'으로 충분한 모습이었다.

주변에 출가한 이들 중에 청소년법회나 대학생 법회 출신들이 몇 있다. 속가에서 법회와 스님의 인연을 맺어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자라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 비율이 줄어들어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출가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청소년, 대학생 등의 젊은 층에게 출가생활의 당당함과 멋을 전달할 포교스님이 부족한 때문이다.

지금은 적지 않은 불자들이 혹 하나뿐인 자녀가 출가하겠다면 허락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이 든 사람의 출가가 문제가 있어서 제한을 한다면 따로 젊은 사람의 출가를 유도할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출가의 뜻을 일어나게 하고 그 뜻이 잘 익어지도록 지켜주던 휘광스님 같은 스님이 필요한 때다.

이번호부터 12월까지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주경스님은 86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수덕사에서 설정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89년 범어사에서 비구계, 93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으며 수덕사 포교 · 교무 국장,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을 지내고 현재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과 서산 부석사 주지로 있다.

이세상 햇빛을 못본채 어둠속으로 스러져간 아기 넋들을 위한

제7회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연합법회

이제 세상에 막 태어나려는 한 생명체가 빛도 보지 못한 채 어둠속으로 사라져 가면서 받는 살상의 충격은 아기영가에게는 큰 영적장애가 되며, 모친에게는 큰 악업이 되므로 반드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참 평안을 위해서 천도재를 지내주어야 합니다.

천도기도기간

기 도 일	양 월 일(음 력)	요 일	기도정전 준비물
입 제 일	양 9월 29일(음 8월 23일)	일 요 일	1. 장수멸죄경사경 2. 지장님 사불 3. 나무아미타불 사경 4. 광명진언(지의) 5. 신행노트 6. 극락세계유람기
1재	양 10월 1일(음 8월 25일)	화 요 일	
2재	양 10월 8일(음 9월 3일)	화 요 일	
3재	양 19월 15일(음 9월 10일)	화 요 일	
천 도 재	양 10월 19일(음 9월 14일)	토 요 일	
관욕준비물	비누, 수건, 아기영가옷(처음하시는 분) · 광명진언 지의		
비 고	1. 타태한 아기는 한명도 빠짐없이 천도해주어야 합니다. 2. 입재날(양력 9월 29일) 자세한 천도방법을 일러드리오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타태아기를 위한 천도기도는 최소한 3회(3년)를 합니다.		

천도재에 참석하는 방법

▶ 입 재 일 시 : 2002년 양 9월 29일(음 8월 23일) 오전 10시
▶ 회 향 일 시 : 2002년 양 10월 19일(음 9월 14일)
▶ 입 재 장 소 : 자원봉사자 기도도량 **사천왕사** (☎02-939-3900)

접수 및 문의처

■ **불교자원봉사연합회**(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2-3번지 성보빌딩 301호)
■ 자원봉사자 기도도량 **사천왕사**(서울시 노원구 상계 6동 737 일신프라자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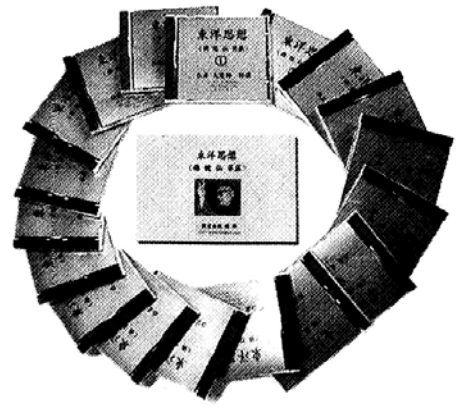
불교자원봉사연합회

☎ 02)723-6258, 939-3900 FAX : 723-6257, 930-0108

탄허대종사

동양사상특강CD안내

탄허 대종사의 깊고 넓고 높은 강의를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탄허대종사께서 1977년~1982년에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18장의 CD에 담아 보급 합니다.



◈ **가 격** : 18장 1세트 126,000원(교재 1권 포함)
◈ **제작 · 보급**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64-4
건대빌딩 본관 202호 **교림출판사**
◈ **Tel 02)733-3334 / H · P 018)733-3334**
02)733-3359
http: www.tanheo.com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 층수 :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평생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헌납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 031)585-3323~5